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20. No. 3, 2009

두통처방에 대한 문헌 예비연구

박보라, 박인숙, 김지훤, 류영수, 강형원, 김태헌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Preliminary Documents Study on Herb Medicines of Headaches

Bo-Ra Park, In-Suk Park, Ji-Hwon Kim, Yeoung-Su Lyu,
Hyung-Won Kang, Tae-Heon Kim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o study for classifying indications and procedure of historical changes, as a preliminary study, we collected and arranged prescriptions of headaches in medical documents after 『Hwang-Je-Nae-Gyeong』.

Methods :

1. The researcher reviewed books, as a bibliography, recording to associate with a headaches in 『UI-Bu-Jeon-Rok』.
2. In reference books, we collected and arranged the herb medicines related to headaches in chapter of them.
3. In case of no chapter associated with headaches in books, we found prescriptions related to headaches and rearranged them.
4. Applied or added herb medicines were excluded, if the chief virtue was not primarily for headaches.
5. Prescriptions for signs to headaches related to dizziness were excluded.
6. Prescriptions for signs to associated with tremor were excluded.
7. We excluded prescriptions of headaches for dermatological disease.

Results and conclusions :

1. Thirty seven documents were referred to the section of a headche in 『UI-Bu-Jeon-Rok』.

투고일 : 8/8 수정일 : 9/4 채택일 : 9/5
교신저자 : 김태헌,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543-8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 신경정신과
Tel : 062-670-6472, E-mail : jayou88@wonkwang.ac.kr

2. Prescriptions of『Sang-Han-Ron』, which were related to headaches, were repeatedly quoted in chinese medical publications.
3. Nameless prescriptions of headaches were recorded from earlier books to later publications.
4. It started to record prescriptions of headaches separately from『Hawl-In-Seo』in 1107.
5. Described how to discriminate Naesang from Oegam, but prescriptions of headache were not listed in Dongwon Yi's 『Nae-Oe-Sang-Byeon-Hok-Ron』 which was published in 1247.

Key Words :
Headache, Herb medicine, UI-Bu-Jeon-Rok

Ⅰ. 서 론

두통은 頭部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통을 말하며, 임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병증의 하나로서 특정한 질병단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질병의 수반증상 또는 심한 긴장이나 피로의 표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두개내 질환의 경고일 수도 있다[1].

이러한 두통의 1년 유병률은 45~70%나 되고 전체 인구 중 90% 이상이 일생에 한번 이상 겪게 되는 매우 흔한 신경학적 증상으로서[2], 현대사회에서는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생존경쟁으로 인해 스트레스 또한 증가하여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韓醫學에서 頭는 "諸陽之會", "精明之府"로서, 五臟六腑의 氣血이 모두 이곳에 모인다고 하였고, 外感六淫, 內傷七情으로 臟腑陰陽氣血이 失調되어 두통을 야기한다고 하였으며[3],『素問・五臟生成論』에서 "頭痛巔疾, 下虛上實"이라고 처음 언급한 이래 '首風', '衝頭痛', '頭風', '眞頭痛', '厥頭痛' 등 두통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1,4].

두통의 한의학적 분류와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病因에 따라 外感頭痛과 內傷頭痛으로, 六經分類에 따라 三陽頭痛과 三陰頭痛으로[1], 발생부위에 따라 前・偏・後・頭頂・全頭痛으로 나눌 수 있고[5], 치료에 있어서도 침치료나 약침치료, 부항요법, 한약에 의한 약물치료 등 다양한 치료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두통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침치료나 약물치료에 의한 효과 관찰[6-8], 두통과 다른 생체정보와의 상관성[9-11], 심리요인과의 관련성[12,13], 임상 관찰이나 치험례 보고[14-18]와 같은 임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문헌 연구로는 긴장성 두통[19]에 대해서나 형상의학적 고찰[20], 침구치료에 대한 연구[21-23]가 이루어졌지만 두통처방에 대한 문헌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두통 처방의 시대별 변화과정과 두통 증상에 따른 처방 분류, 두통 사용약물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한 예비연구로서『黃帝內經』이후의 醫書로부터 두통치료에 사용된 처방들을 수집・정리하였으며 그 과정 중에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

는 바이다.

Ⅱ.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자료

1986년 대성문화사에서 발행된 『圖書集成·醫部全籙』[24]의 頭門 목차에서 두통이 언급된 37개 문헌의 原書를 찾아 기본 연구자료로 하였다.

本書는 『欽定古今圖書集成』중의 일부로서 원래는 淸代 康熙帝의 칙명을 받아 陳夢雷·蔣延錫이 1726년에 편찬하였으며 총 권수 1만권, 목록 40권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백과전서로서, 1959년에 인민위생출판사에서 醫部만을 선별하여 출판할 때 『古今圖書集成·醫部全籙』이라고 하여 총 520권의 『醫部全籙』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黃帝內經』부터 淸代 초기 陳士擇의 『石室秘錄』(1687년)까지 거의 2,000년 기간의 대표적인 의학문헌 약 120여종을 부문별로 분류하여 편찬한 것인데, 문헌이 출처와 함께 실려 있기 때문에 문헌에 대한 조사를 하기에는 더 없이 귀중한 사료로서[25-7], 두통처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어 기본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1) 『醫部全籙』 頭門 목차에서 두통이 언급된 37개 문헌의 原書를 찾아 기본 참고문헌으로 하였다.

2) 『傷寒雜病論』으로부터 『傷寒論』과 『金匱要略』 둘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傷寒論』도 기본 참고문헌에 포함시켰다.

3) 참고문헌의 原書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醫部全籙』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4) 37개 참고문헌에서 頭疼, 腦風, 首風, 頭痛, 腦痛, 偏頭痛, 頭風, 眉眶痛, 眉骨痛, 眼眶骨痛, 眉稜痛, 頭重 등 두통 관련 증상이 기록된 門이나 篇을 위주로 처방을 수집, 정리하였다.

5) 두통 관련 증상이 기록된 門이나 篇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主治에 두통 관련 증상이 있는 처방을 서적 전체에서 찾아 정리하였다.

6) 主治가 아닌 應用이나 加味, 加減 등에 두통이 언급된 경우의 처방은 제외하였다.

7) 頭眩, 風眩, 眩運, 眩暈, 頭風 등의 어지럼증 관련 증상은 두통 처방에서 제외하였다.

8) 頭搖 등의 振顫 관련 증상도 제외하였다.

9) 頭部의 각종 癰疽와 發腦, 髮際發, 大頭瘟, 頭腫, 頭生白屑, 頭風屑, 頭面腫, 頭瘡 등의 피부과 질환에 의한 두통 처방도 제외하였다.

3. 기술방법

1) 문헌명은 모두 『 』를 덧붙여 본문내용과 구분하였다.

2) 37개 참고문헌을 시대순서별로 기술하였다.

3) 서지정보와 내용을 본론에 간략히 서술하였다.

4) 두통처방이 기술되어 있는 門과 篇을 기술하고, 지면관계상 處方名과 갯수만 서술하였다.

5) 한 문헌 내에서 중복된 處方名은 기술에서 제외하고, 갯수에서도 제외하였다.

Ⅲ. 본론 및 고찰

1. 黃帝內經[26,27)]

저작연대는 현재 확실히 고증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中國의 戰國時代에서 秦漢時代 사이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동양의학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이다. 구성은 『素問』과 『靈樞』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매우 풍부하여 기본이론으로부터 질병설명, 진단, 치료, 양생, 침구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치료방면에 관해서는 특히 針刺法을 강조하여 구체적인 질병의 치료는 거의 전부 針刺法을 썼으며 약물치료를 쓴 곳은 전체에서 11곳에 불과한데, 두통에 대한 내용도 생리, 병리에 관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으며 약물치료와 관련된 처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2. 難經[25-28)]

작자는 불확실한데 대략 기원전 5세기 東漢 시기 이전의 전국시대 명의인 扁鵲 즉 秦越人의 저술이라고 託名하여 『扁鵲難經』이라고도 하고, 81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어 『八十一難經』이라고도 한다. 내용은 내경의 요지를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등의 각 방면에 대해 문답 해석하는 방식으로 밝히고 있으며 주로 脈法과 針刺에 관한 내용이 많다.

두통에 대한 내용으로는 60難에 "頭心之病 有厥痛 有眞痛 何謂也? 然, 手三陽之脈受風寒 伏留而不去者 則名厥頭痛, 入連在腦者 名眞頭痛"이라 하여 厥頭痛과 眞頭痛에 관해 언급되어 있으나 관련 처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中藏經[25-27,29)]

2세기경 남북조시대에 저작된 책으로 3권으로 된 의서이며 표제에 東漢末期의 華佗(?~208년)가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華氏中藏經』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은 華佗의 제자들이 華佗가 남긴 유고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거나 후대 사람이 이를 베낀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本書의 내용은 기본이론을 논한 책으로서 상권과 중권에는 論辨 49篇이 있고, 하권에는 처방 60道(123首)가 기재되어 있는데, 論辨 49篇에서는 十數種의 內科雜病을 위주로 病源, 病理, 診斷 및 治療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頭痛에 대한 내용은 論肝臟虛實寒熱生死逆順脈證之法 第二十二와 論診雜病必死候第四十八, 察聲色形證決死法第四十九에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두통 처방은 기재된 것이 없다.

4. 傷寒論과 金匱要略[26,27,30,31)]

原書는 약 3세기 초 東漢末年에 張仲景에 의해 편찬된 『傷寒雜病論』 16권으로서 사회적 혼란과 전란에 의해 散失되었으며, 현재 전해지고 있는 趙開美本의 『傷寒論』은 宋代 1065년에 林億 등이 『傷寒雜病論』 중에서 傷寒 부분만을 따로 뽑아서 10권 22편으로 만든 宋本 『傷寒論』을 明代 趙開美가 金代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을 다시 간행하면서 宋本 『傷寒論』을 참조한 것으로 宋本 『傷寒論』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金匱要略』은 『金匱要略方論』의 약칭으로 『傷寒雜病論』에서 傷寒 부분은 제외하고 雜病 위주의 내용만 취하여 다시 3권으로 만든 것으로서, 현재 전해지는 『傷寒論』과 『金匱要略』 두 책은 실제로는 『傷寒雜病論』 하나를 둘로 편성한 것이다.

『傷寒論』에서는 두통과 관련된 내용으로

"太陽之爲病 脈浮頭項强痛而惡寒", "陽明病爲無汗而小便利 二三日嘔而咳 手足厥者 必苦頭痛", "傷寒 脈弦細 頭痛發熱者 屬少陽"이라 하여 두통을 변증하고 있으며, 方의 主治 중에 두통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총 7개로 처방명은 桂枝湯, 麻黃湯, 四逆湯, 承氣湯, 十棗湯, 五苓散, 理中丸이다. 그리고 『金匱要略』에서는 두통과 관련된 내용이 藏府經絡先後病脈證幷治 第一, 痙濕暍病脈證幷治 第二, 百合狐惑陰陽毒病證幷治 第三, 腹滿寒疝宿食病脈證 第十에 언급이 되어 있고, 主治에 두통이 언급된 처방은 嘔吐噦下利病脈證幷治 第十七에 "乾嘔吐涎沫 頭痛者 茱萸湯主之"라 하여 茱萸湯方 1개가 있다.

5. 脈經[26,27,32)]

3세기 西晉시대의 王叔和가 저술한 최초의 맥학 전문서로서 漢代이전의 脈學을 집대성하였다. 내용을 보면 총 10권으로서 『內經』, 『難經』및 扁鵲, 華陀, 張仲景 등의 관련 논술을 선별하여 門, 類로 나누어 脈理를 설명하였고, 실제 임상과 연계시켰다.

두통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卷二 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와 平三關病候幷治宜第三, 卷七 病可刺證第十三, 病可水證第十五, 卷八 平中風歷節脈證第五에 언급되어 있고, 두통 처방으로는 『傷寒論』 처방으로 보여지는 桂枝湯, 葛根湯, 麻黃湯, 甘遂丸의 4개가 기재되어 있으나 처방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脈訣(王叔和)[24,27)]

王叔和 撰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六朝人 高陽生이 王叔和의 이름을 빌어서 지은 것으로 본다. 책은 한권이고 내용도 비교적 간단하며 또한 歌訣로 되어있어 임상가도 기억하기 쉽다. 그 내용이 대개 王叔和의 脈經에서 취한 것이므로 『王叔和脈訣』이라고도 한다.

『醫部全錄』 頭門一에 頭痛脈에 관해 "頭痛短澀應須死, 浮滑風痰必易除"라고 논하고 있으나, 두통 처방은 보이지 않는다.

7. 脈訣(崔紫虛)[27,33)]

12세기 말 南宋代의 崔嘉彦이 저술하였으며, 『崔氏脈訣』, 『崔眞人脈訣』, 『紫虛脈訣』이라고도 한다. 저자는 脈理가 분명히 밝히기 어려우며 또한 "非言可傳 非圖可狀" 이라고 하면서 비교적 통속적이고 쉬운 문필의 四言歌訣 형식으로 脈學義理를 설명함으로써 초학자가 학습하고 암기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 책은 후세 맥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明代 李時珍의 아버지인 李言聞 先生이 本書 2,728字에서 對句가 맞지 않는 부분은 韻을 맞추어 보충하고, 脈理상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2,640字로 축소하여 『四言擧要』를 편찬하였고, 李時珍이 자신의 『瀕湖脈學』과 함께 『本草綱目』에 부록으로 실었다.

第二章 各論 第八節 諸病脈法 頭痛에서 頭痛之脈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논하고 있으나 두통 처방은 보이지 않는다.

8. 千金方[26,27,34)]

唐代의 孫思邈(581~682년)이 편찬한 것으로 『備急千金要方』의 간칭이다. 비록 명의상으로는 方書이지만 실제로는 의사로서 반드시 알아야할 이론과 임상지식을 거의 다 포괄하고 있다. 이 책은 30권으로 모두 232門이며 4,300首의 처방을 수록한 중국 최초의 임상백과전서라 할 수 있으며, 수록된 醫書와 醫方은 『內經』 이후부터 唐代 초기 이전의 의학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本書에는 頭痛門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卷第十三 心臟, 頭面風 第八의 腦風頭重에 芎藭酒, 頭痛에 杏仁膏, 頭風에 大豆酒, 牽引目睛疼痛에 薯蕷散의 4개 처방이 기재되어 있으며 無名處方은 中風頭痛에 1개, 頭中痛에 1개, 卒中惡風頭痛에 3개, 頭項强不得顧視에 4개 등 도합 9개의 處方이 기재되어 있다.

9. 活人書[26,27,35)]

宋代의 朱肱이 1107년에 지은 책으로 처음 이름은『無求子傷寒白問』이며 1111년에 張蘊이 서문을 쓰고『南陽活人書』라고 개명하였다. 本書는『傷寒論』을 연구한 비교적 초기의 저작으로서 총 22권인데 1-11권까지는 문답체로 100가지 문제를 설정하여 張仲景의『傷寒論』을 밝혔고, 12-15권까지는『傷寒論』113방을 해석하였으며, 16-18권까지는 各家의 傷寒方 126方을 기재하였다. 19-21권은 부인 및 소아상한과 治療方藥, 小兒疱疹을 논술하였으며, 22권은 宋代 醫家인 李子健의『傷寒十勸』이다.

두통에 대한 내용과 처방으로는 9卷 68問 頭疼에 麻黃湯, 桂枝湯, 蓮鬚葱白湯, 葛根葱白湯, 小柴胡湯, 調胃承氣湯, 吳茱萸湯, 瓜蒂末의 8개 두통 처방이 언급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질환에 동반된 두통 처방으로 7卷 52問 食積에 3개(治中湯, 五積散, 黑神圓), 54問 脚氣에 5개(越婢湯, 小續命湯, 薏苡仁酒法, 脾約丸, 神功圓), 15卷 傷寒方 89에 1개(十棗湯), 16卷 雜方에 2개(升麻湯, 返陰丹), 17卷 雜方에 4개(解肌湯, 萎蕤湯, 調中湯, 金沸草散), 18卷 雜方에 1개(古今錄驗橘皮湯), 19卷 妊娠傷寒藥方에 4개(柴胡石膏湯, 蘆根湯, 梔子五物湯, 前胡七物湯), 20卷 小兒傷寒에 1개(雙丸), 21卷 小兒瘡疹에 1개(水解散) 등 총 30개의 처방이 기재되어 있다.

10. 普濟本事方[25-27,36)]

12세기 중엽 許叔微(1079~1154년)가 만년에 저작한 것으로 모두 10권이며 病에 따라 25門으로 나누었고 318方을 수록하였다. 每方은 먼저 主治와 方名 및 藥味分量을 기록하고, 服法과 治法을 다음에 기술하였으며, 처방 말미에는 저자의 경험 醫案을 부가하였다.

두통 처방으로는 卷二 頭痛頭暈方에 玉眞圓, 硫黃圓, 白附子散, 黑龍圓과 氣虛頭疼에 無名處方 3개 등 총 7개 처방이 기재되어 있다.

11. 河間六書[26,27,37,38)]

河間六書는 金元四大家의 한명인 劉完素(1120~1200년)가 편찬하고, 明代의 吳勉學 등이 編校하여 1601년에 간행한 것으로서『素問玄機原病式』,『黃帝素問宣明論方』,『素問病機氣宜保命集』,『傷寒直格論方』,『傷寒標本心法類萃』 및 金代의 馬宗素가 편찬한『傷寒醫鑑』을 포괄한다.

『素問玄機原病式』은 총 1권으로『原病式』이라고도 하며 1152년에 간행되었다. 本書는 주로『素問·至眞要大論』중의 病機 19條를 근거로 하여 五運, 六氣 主病 11條의 病機를 정리·귀납한 것인데, 모두 277字로 되어 있다.『黃帝素問宣明論方』은 총 15권으로『宣明論方』이라고도 하며, 대략 1172년에 만들어졌다. 이 책은『素問』에 기재된 病候 및 方藥의 부족을 보충하였으며, 아울러 寒凉한 약물에 편중하고 降火益陰을 위주로 하는 저자의 치법을 반영하였다.『素問病機氣宜保命集』은 上中下 3권으로 1186년에 만들어졌으며, 저자가 晩年에 임상을 통해 얻은 것을 총

결하여 편찬하였다.『傷寒直格論方』도 1186년경에 총 3권으로 만들어졌으며,『傷寒直格』이라고도 약칭한다.『傷寒標本心法類萃』 또한 1186년경에 총 2권으로 만들어졌으며,『傷寒標本』이라고도 약칭하는데 傷寒의 증상과 치료를 논한 전문서이다.『傷寒醫鑑』은 총 1권으로 本書에서 논한 傷寒은 대부분 溫熱범주에 속한다.

『素問玄機原病式』에는 두통 관련 처방이 없다.『黃帝素問宣明論方』에는 卷二 諸證門 腦風證에 1개(神聖散), 首風證에 2개(大川芎丸, 秘方茶酒調散), 目風眼寒證에 1개(石膏散), 厥逆頭痛證에 1개(天南星丸), 卷三 風門에 3개(比金散, 瓜蒂神妙散, 川芎天麻散), 卷五 傷寒門에 2개(麻黃湯, 桂枝湯), 卷六 傷寒門에 5개(十棗湯, 桂苓甘露湯, 人蔘石膏散, 崔宣武人蔘石膏湯, 茯苓半夏湯), 卷七 積聚門에 1개(無憂散), 卷九 痰飮門에 2개(大人蔘半夏丸, 人蔘散)로 총 18개의 처방이 있다.『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는 卷下 大頭論第三十의 附:雷頭風에 1개(升麻湯), 藥略第三十二 附:『素問』五氣五行稽考에 1개(瓜蒂散)로 총 2개의 처방이 실려 있다.『傷寒標本心法類萃』에는 卷上 頭疼에 8개의 두통 처방이 있는데 白虎湯, 白虎加減湯, 茯苓半夏湯, 黃連解毒湯, 桂苓甘露飮, 半夏橘皮湯, 人蔘石膏湯, 不臥散이다.『傷寒直格論方』에는 卷中 俱中風寒에 白虎湯, 茯苓半夏湯, 半夏橘皮湯, 十棗湯, 雙解散의 5개 두통 처방이 있고,『傷寒醫鑑』에는 두통 처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 儒門事親[26,27,39)]

金元四大家의 한명인 張從正(1156~1228년)의 저서로서 총 15권인데, 원래는 흩어진 10종의 저작을 후인들이 편찬하여 한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劉完素의 학술사상을 계승하여 약물을 사용할 때 寒凉한 약물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아울러 發汗法, 吐法, 攻下法에도 능하였으나,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先攻後補를 주장하여 攻下法에 치우쳤다.

두통 관련 내용은 卷四 頭痛不止 三十七, 卷六 熱形 頭熱痛 四十, 熱厥頭痛 五十六, 卷七 燥形 偏頭痛 九十二 등에 있으며 기재된 처방은 총 12개인데, 頭痛不止에 "先以茶調散吐之 後以香薷飮・白虎湯投之則愈"偏頭 하였고, "然頭痛不止, 可將葱白鬚・豆豉湯吐之 후 搜風丸・香芎散을 쓴다"頭 하였痛 五十偏頭痛에 치험례로 白龍丸재된芎犀丸을, 또 다른 치험례에는 大承氣湯 복용 후 七宣丸・神功丸을 복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頭熱痛재된熱厥頭痛에는 두통과 관련된 내용은 있으나 처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 東垣十書[26,27,40)]

金元四大家의 한명인 李杲(1180~1251년) 등 宋・金・元代 醫家들의 저작 10종을 선별해서 모은 것으로 1529년에 간행되었다.『內外傷辨惑論』,『脾胃論』,『蘭室秘藏』 등의 3종은 李杲의 저작이고, 나머지『脈訣』,『格致餘論』,『局方發揮』,『湯液本草』,『此事難知』,『醫經溯洄集』,『外科精義』 등의 7종은 다른 醫家의 저작이다.『內外傷辨惑論』은 총 3권으로 1247년에 간행되었으며, 주로 飮食勞倦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하여 논술하였고,『脾胃論』은 1249년에 간행된 책으로서 총 3권이며, 脾胃學說을 주창한 李杲의 대표작이다.『蘭室秘藏』은 李杲의 저술을 제자 羅天益이 총 3권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1276년 간행되었다.『格致餘論』은 1347년에 1권으로 간행된 朱震亨(1281~1358년)의 대표작으로서 "陽常有餘 陰常不足"의 이론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고, 治法에서도 滋陰降火를 위주로 하

여 모두 41篇의 論文이 수록되어 있으며,『局方發揮』는 총 1권으로서 宋代에 편찬된『和劑局方』에 실린 기존처방의 配伍와 사용원칙 및 辨證論治 등에 대해 문답체로 논평하는 형식으로 朱震亨이 1347년에 간행한 책이다.『湯液本草』는 元代의 王好古(1200~?)가 1289년에 총 3권으로 편찬한 책이며,『此事難知』는 1308년에 총 2권으로 편찬한 책으로서 王好古가 그의 스승인 李杲의 醫學論述을 모은 것이다.『醫經溯洄集』은 朱震亨에게서 의술을 배운 王履(1332~?)가 1368년에 편찬한 책이며,『外科精義』는 元代의 齊德之가 1335년에 총 2권으로 편찬한 外科醫論이다.

두통에 대한 내용과 처방은『內外傷辨惑論』卷上 辨頭痛에 內證頭痛과 外證頭痛을 감별하는 법이 실려 있으나 두통 처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脾胃論』에는 卷上 分經隨病制方에 羌活勝濕湯, 卷中 飮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에 補中益氣湯, 卷下 調理脾胃治驗 治法用藥若不明升降浮沈差互反損論에 半夏白朮天麻湯, 脾胃損在調飮食適寒溫에 神聖復氣湯 등 4개 처방이 기재되어 있으며,『蘭室秘藏』卷中 頭痛門에는 吳茱萸湯, 加味調中益氣湯, 半夏白朮天麻湯, 淸空膏, 羌活附子湯, 玉壺丸, 徹淸膏, 川芎散, 白芷散, 碧雲散, 羌活淸空膏, 淸上瀉火湯, 補氣湯, 細辛散, 羌活湯, 養神湯, 安神湯 등 17개의 처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此事難知』에는 卷上 太陽證에 麻黃湯, 桂枝湯의 2개 처방이, 卷下 諸經頭痛에 麻黃湯, 桂枝湯, 白虎湯, 柴胡湯, 理中湯, 麻黃附子細辛湯, 桂枝麻黃各半湯, 吳茱萸湯의 8개 처방이 기재되어 있으나 중복되는 처방을 제외하면 총 8개 처방이다.『脈訣』,『格致餘論』,『局方發揮』,『湯液本草』,『醫經溯洄集』,『外科精義』에는 두통 관련 처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4. 丹溪心法[26,27,41]

本書는 元代 朱震亨(1281~1358년)의 학술경험과 평소에 이야기한 바를 제자들이 편집하여 만든 것을 明代의 程充이 교정하여 1481년에 5卷으로 간행한 책으로서 "陽常有餘 陰常不足"학설, 氣・血・痰・鬱의 諸病에 대한 치료견해 및 풍부한 경험이 집중적이면서도 전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卷四 頭風 六十六과 頭痛 六十八, 眉眶痛 六十九에 두통 관련 처방이 기재되어 있는데, 총 36개 처방이 있다. 頭風門에 二陳湯, 瘦人搐藥, 一粒金搐鼻方, 消風散, 茶調散, 三五七散의 6개 처방과 無名處方 6개가 있고, 頭痛門에는 淸空膏, 芎歸湯, 追涎藥, 秘藏安神湯, 吳茱萸湯, 徹淸膏, 順氣和中湯, 不臥散, 半夏白朮天麻湯, 芎歸湯, 調中益氣湯의 11개 처방과 無名處方 2개가 있다. 眉眶痛門에는 生熟地黃丸, 導痰湯, 芎辛湯, 二陳湯, 靑州白丸子, 選奇方, 四神散의 7개 처방과 4개의 無名處方이 있다.

15. 衛生寶鑑[25-27,42]

元代 羅天益(1220~1290년)은 李東垣의 제자로서 이 책의 편찬연대는 미상이며 총 24권에 補遺 1권이 있다. 本書는 李東垣의 학술경험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고 또한 諸家의 說을 채용하였으며 저자가 체득한 것을 참고하여 편성하였는데, 질병분류에 계통성은 없으나 每 門마다 부방의 분류배열은 辨證論治의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두통 관련 처방은 卷九 諸風門 頭痛門竝治法方, 氣虛頭痛治驗, 頭面諸病 頭風論幷方, 腦頭風方, 眉骨痛方에 있으며 총 18개 처방으로서, 頭痛門竝治法方에 救苦神白散, 川芎散, 石膏散, 川芎神功散, 茯苓半夏湯, 乳香盞落散, 淸空膏, 加白芷湯, 石膏散, 如聖散, 半

夏茯苓天麻湯, 川芎散의 1218개 처방으로서, 頭고, 氣虛頭痛治驗에는 順氣和中湯 1개, 頭面諸病 頭風論幷方에는 人蔘消風散, 龍腦芎犀丸, 神淸散의 3개, 腦頭風方에는 淸震湯 1개, 尾骨痛方에 選奇湯 1개8개 처방수록되어 있다. 처방중 頭痛門竝治法方에 개 내용은 다르나, 처름처방같은 처방으로 石膏散, 川芎散이 각각 2개씩 실려 있다.

16. 濟生方[26,27,43)]

宋代 嚴用和가 1253년에 저술한 책으로『嚴氏濟生方』이라고도 하며, 총 10권이다. 그 내용은 中風・中寒・中暑 등의 內科・外科・婦人科 질병 79편을 포괄하고, 각 篇 마다 먼저 病候를 논술한 후에 方劑를 기재하였다. 方劑는 총 450여 方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처방의 대부분이 저자의 試用을 거친 것이어서 매우 실용적이다.

卷八 頭痛論治에 芎辛湯, 菊花散, 葱附圓, 三生圓, 玉眞圓, 二芎餠子, 胡蘆巴散 등 총 7개의 처방이 기재되어 있다.

17. 仁齊直指[25,27,44)]

1264년에 宋代 楊士瀛이 편찬하였으며『仁齊直指方論』이라고도 한다. 총 26권으로서 內科雜病의 증상과 치료를 중점적으로 소개한 임상종합의서이다.

卷十九 頭風 頭風方論 頭風證治에 기재된 처방은 35개로 消風散, 追風散, 川芎茶調散, 究原抽刀散, 芎芷散, 香芷散, 二陳湯, 如聖餠子, 細辛湯, 葛根湯, 桂枝葛根湯, 頭風方, 川芎散(拔萃方), 菊花茶調散, 吳茱萸湯, 羌活附子湯, 加減三五七散, 仲景麻黃湯, 桂枝湯, 定風餠子, 川芎散(聖惠方), 淸空膏, 白虎湯, 寶鑑石膏散, 豆粉丸, 徹淸膏, 半夏白朮天麻湯, 順氣和中湯, 安神湯, 芎歸湯, 調中益氣湯, 選奇湯 등 32개 처방과 無名處方 3개가 있고, 卷四 發熱 頭痛에는 鎭痛神丹, 麻黃湯, 桂枝湯, 蓮鬚葱白湯, 葛根葱白湯, 調胃承氣湯, 小柴胡湯, 瓜蒂末, 瓜蒂散, 吳茱萸湯, 小建中湯, 桂枝麻黃各半湯, 如聖餠子 등 13개의 처방이 기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중복되는 처방을 제외하면 총 46개의 처방과, 無名處方이 3개가 된다.

18. 世醫得效方[26,27,45)]

1337년에 危亦林(1277~1347년)이 五世家傳醫方과 근대 名醫의 諸方에 근거하여 총 20권으로 편찬한 책으로서, 책의 순서가 元代醫學十三科에 의거하여 비교적 계통적이고 종합적인 의서이다.

卷十 大方脈雜醫科 頭痛에 총 35개의 처방이 기재되어 있는데, 芎芷香蘇散, 消風散, 蓮鬚葱白湯, 葛根葱白湯, 茵蔯散, 小芎辛湯, 防風散, 太陽丹, 洗心散, 茶調散, 芎犀丸, 神芎丸, 蘿蔔汁, 加減辛夷散, 大芎辛湯, 如聖餠子, 大附丸, 四川丸(鶴頂丹), 硫黃丸, 胡蘆巴散, 點頭散, 附子湯, 淸空膏, 白附子散, 備急丸, 四柱散, 二陳湯, 瓜蒂散, 都梁丸의 30개 처방과 5개의 無名處方이 있다.

19. 證治要訣[25-27,46)]

明代의 戴思恭(1342~1405년)이 1443년에 12권으로 편찬한 종합의서로서『秘傳證治要訣』이라고도 한다. 本書는 모두 12門으로 나누어 증상을 열거하였고, 病因을 논한 후에 病源을 서술하여 증상에 따라 病證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治法을 설명하였다. 證治要訣類方은 총 4권으로 간행되었으며, 證治要訣 중 각 門의 병증에서 인용된 처방들을 모아 湯・散・丸・丹・膏로 분류하고 그 主治와 配伍, 복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놓

은 것이다. 戴思恭은 朱丹溪의 제자로서 그의 의학견해는 스승의 학설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卷五 諸痛門 頭痛과 眼眶骨痛에 처방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처방내용은 證治要訣類方에 실려 있다. 諸痛門 頭痛에는 如聖餠子, 烏芎湯, 敗毒散去柴胡加甘菊花, 小續命湯加全蝎, 大三五七散, 消風散, 通關散, 茶調散, 芎辛湯加全蝎, 太陽丹, 大茶調散, 八生散, 追風散, 一字散, 芎星湯, 芎辛湯去茶芽, 導痰湯加芎, 二陳湯, 導痰湯, 都梁丸, 沈香降氣湯, 蘇子降氣湯, 養正丹, 芎附飮, 正元散, 來復丹, 黑錫丹, 茸朱丹의 총 28개 처방이 있고, 諸痛門 眼眶骨痛에는 生熟地黃丸, 導痰飮, 芎辛湯去茶芽, 二陳湯, 靑州白丸子의 5개 처방이 있다.

20. 奇效良方[26,27,47)]

원래명칭은 『太醫院經驗奇效良方大全』으로 明代 正統 연간(1436~1449년)에 太醫院使를 지낸 董宿이 편찬하였으나 전부 마치지 못하고, 方賢이 그를 이어서 보충하여 총 69권으로 편성한 것이다. 本書는 주로 證候에 따라 門을 나누었고, 病因 疾病部位 治療方法에 따라 나눈 것도 있는데 모두 66門으로 七千餘首의 처방을 수록하였다. 方의 앞에는 論이 있어서 『內經』, 『脈經』 등의 이론을 근거하여 宋代에서 明初까지 醫方을 수록하였다.

卷二十四에 頭痛頭風大頭風門에 총 88개 처방이 있는데, 方名이 있는 두통 처방이 76개이고, 方名이 없는 無名處方이 12개 이다. 方名이 있는 처방으로는 吳茱萸湯, 調中益氣湯, 半夏白朮天麻湯, 羌活附子湯, 金花丸, 芎朮湯, 小芎辛湯, 川芎散, 菊花散, 通關散, 三生丸, 天香散, 藿香散, 芎辛導痰湯, 如聖餠子, 加減三五七散, 川芎茶調散, 普濟消毒飮, 大川芎丸, 大追風散, 急風散, 淸空膏, 神應散, 星烏散, 通頂煙, 點頭散, 石膏鼠黏子散, 頭疼決捷方, 芎犀丸, 靑火金針, 赤火金針, 神聖餠子, 自附散, 葱附丸, 升蒼荷葉散, 上淸散, 麝香茶芽散, 大芎辛湯, 必效散, 川芎羌活散, 烏罌散, 葫蘆巴丸, 韭根丸, 止痛太陽丹, 治頭痛不可忍方, 芎辛丸, 龍珠丹, 黑錫丹, 順氣和中湯, 淸上瀉火湯, 旣濟解毒湯, 治偏頭痛不可忍方, 治偏頭疼方, 神效方, 仙靈脾浸酒方, 一字散, 飛虎散, 千金散, 盞落湯, 抽刀一字散, 蘆薈散, 沐頭方, 惡實入篋中方, 都梁丸, 枕頭方, 仙方如聖餠子, 一字輕金散, 淸神散, 一滴金丸, 川芎丸, 羌活散, 通關散, 太一麝香湯, 必捷散, 全蝎散 등이다.

21. 傷寒六書[26,27,48)]

15세기 明代의 醫家인 陶華가 지은 저서로 총 6권이며, 『陶氏傷寒全書』라고도 한다. 『傷寒瑣言』, 『傷寒家秘的本』, 『傷寒殺車捶法』, 『傷寒一提金』, 『傷寒證脈藥截江網』, 『傷寒明理續論』의 6종의 傷寒 저작으로, 각 종마다 1권으로 되어 있는데 朱肱의 『南陽活人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두통 관련 처방으로는 『傷寒瑣言』 卷之一 諸方 편에 羌活冲和湯, 解肌湯, 敗毒散, 小柴胡湯, 升麻湯, 和解散의 6개 처방이 있고, 『傷寒家秘的本』 卷之二의 頭痛 편에는 調胃承氣湯, 小柴胡湯, 瓜蒂散, 吳茱萸湯 등 4개가 처방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傷寒殺車捶法』 卷之三의 秘用三十七方就注三十七槌法 중에는 主治에 두통이 포함된 처방이 총 12개가 있는데 升麻發表湯(麻黃湯加減), 疏邪實表湯(桂枝湯加減), 羌活沖和湯, 柴葛解肌湯(葛根湯加減), 再造散, 調榮養衛湯, 益元湯, 加味導痰湯, 加減調中飮, 加減續命湯, 芩連消毒湯, 六神通解散麻黃湯 처방이다. 『傷寒明理續論』 卷

之六 頭痛 편에는 麻黃湯, 桂枝湯, 葛根葱白湯, 蓮鬚葱白湯, 調胃承氣湯, 小柴胡湯, 瓜蒂末, 瓜蒂散, 吳茱萸湯, 梔子黃芩湯, 葱頭湯 등 11개 처방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처방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傷寒一提金』, 『傷寒證脈藥截江網』에는 두통 편이 따로 없고, 두통 관련 처방이 몇 군데 보이나 중복되는 내용들이다.

22. 明醫雜著[25-27,49)]

1502년 明代의 王綸이 저술하고, 薛己가 注를 달았으며, 1549년에 간행된 책으로서 현재 전해지는 것은 『薛氏醫案』本이다. 本書는 모두 6권으로 內科雜病 및 婦眼耳鼻齒 등의 雜證證治를 논술하였는데, 外感은 仲景의 법을 쓰고, 內傷은 東垣을 따랐으며, 熱病은 完素의 법을, 雜病은 丹溪의 법을 사용하였다.

두통 관련 처방은 卷三 續醫論 頭痛 편에 4개 실려 있는데 小柴胡加 茯苓 山梔子, 六味丸, 六君子湯加味, 補中益氣加 蔓荊子이다.

23. 醫學正傳[25-27,50)]

明代의 虞搏(1438~1515년)이 1515년에 8권으로 편찬한 종합의서으로서 임상 各科에서 흔히 보이는 病證을 기술하였는데, 每 門은 먼저 論證을 하고 다음 脈法을 기하고 다음 方治를 기록하였다. 수록된 처방은 약 1,000餘首이다. 총론은 『內經』의 요지를 근본으로 삼고, 증상과 치료는 朱丹溪의 학술경험을, 傷寒과 內科는 張仲景과 李東垣의 학술을 따랐다.

卷之四 頭痛에 총 35개의 관련 처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중 方名이 없이 一方 또는 又方으로 기재된 것이 4개, 祖傳方 1개, 經驗敷貼이 1개이다. 方名이 기재된 처방은 28개로 補中益氣湯, 選奇湯, 淸空膏, 半夏白朮天麻湯, 安神湯, 徹淸膏, 川芎散, 白芷散, 羌活淸空膏, 淸上瀉火湯, 細辛散, 羌活湯, 一粒金, 羌活附子湯, 麻黃附子細辛湯, 吳茱萸湯, 加味調中益氣湯, 玉壺丸, 川芎茶調散, 治三陽頭痛方, 如聖餠子, 川芎神功散, 芎辛散, 小芎辛湯, 石膏散, 三生丸, 茯苓半夏湯, 二陳湯 등이 있다.

24. 薛氏醫案[27,51)]

明代의 薛己(1486~1558년) 등이 편찬하고 吳瓘이 편집한 것으로서 『薛氏醫案二十四種』이라고도 한다. 모두 4개 科에 24종 의서를 편찬하였는데, 內科에는 『十四經發揮』, 『難經本義』, 『本草發揮』, 『平治會萃』, 『內科摘要』, 『明醫雜著』, 『傷寒鈐法』, 『敖氏傷寒金鏡錄』 등 9종 의서를, 幼科에는 『保嬰撮要』, 『錢氏小兒藥證直訣』, 『陳氏小兒痘疹方論』, 『保嬰金鏡錄』 등 4종 의서를, 女科에는 『校注婦人良方』, 『女科撮要』 등 2종 의서를, 外科에는 『外科發揮』, 『外科心法』, 『外科樞要』, 『外科精要』, 『癰疽神秘驗方』, 『外科經驗方』, 『正體類要』, 『口齒類要』, 『癘瘍機要頭』 등 9종 의서로 편집되어 있다.

두통에 관한 내용으로는 『平治會萃』 卷一 頭風, 眉稜痛 편에 두통관련 내용은 있으나 처방은 없으며, 頭痛 篇에 淸空膏, 川芎當歸湯, 追涎藥 등 3개 처방이 있다. 『校注婦人良方』 卷四 婦人血風頭痛方論第五에는 川芎當歸散, 白附子散, 麻黃附子細辛湯, 吳茱萸湯, 調中益氣湯, 半夏白朮天麻湯, 羌活附子湯, 川芎茶調散, 玉眞丸, 硫黃丸, 都梁丸, 選奇湯, 升麻湯, 六味丸, 逍遙散의 15개 처방 및 無名處方 2개가 있고, 卷二十二 産後頭痛方論에는 黑龍丹, 補中益氣湯, 四物湯, 八珍湯, 六味丸, 芎附散, 都梁丸 7개 처방이 기재되어 있다. 다른 의서에는 두통관련 門이나 篇이

없다.

25. 古今醫統[26,27,52)]

明代의 徐春甫가 1556년에 간행한 종합의서로서 『古今醫統大典』이라고도 한다. 총 40帙 100卷으로 270餘家, 280餘部에 이른다. 내용은 『內經』의 要旨를 포함하여 名家醫論, 脈候, 運氣, 經穴, 鍼灸, 臨證各科證治, 醫案, 驗方, 本草, 製藥, 處方, 養生 등을 수록한 내용이 매우 풍부한 의학전문서이다.

卷之五十三 頭痛門에 두통 처방이 총 78개이며 이 중 14개가 一方, 又方 또는 그 기원만이 기재되어 있다. 方名이 있는 처방은 64개로서 川芎茶調散, 麻黃附子細辛湯, 羌活附子湯, 如聖餠子, 芎半散, 小芎細辛湯, 川芎神功散, 麻黃湯, 桂枝湯, 加減三五七散, 川芎香附湯, 天香散, 藿香散, 大川芎湯, 必勝散, 都梁丸, 川芎散(聖惠), 九龍丸, 川芎丸, 香芎散, 芎芷散, 牙皂散, 追風散, 淸上瀉火湯, 旣濟解毒湯, 飛虎散, 淸空膏, 菊花散, 上淸散, 安神湯, 川芎石膏湯, 芎犀丸, 神芎丸, 茶酒調散, 二陳湯呑下靑州白丸子, 石膏散, 川芎散, 通天散, 靈砂丹, 靑火金針, 赤火金針, 半夏白朮天麻湯, 三生丸, 升氣和中湯, 加味調中益氣湯, 人蔘順氣散, 葱附丸, 四物湯, 當歸酒, 玉眞丸, 珍珠散, 神芎散, 本事方, 玄胡餠, 三因方, 瓜蒂散, 丁香散, 急風散, 止痛太陽丹, 乳香餠, 決明散, 烏麥餠子, 枕頭方, 顔思退方이 있다.

26. 醫學綱目[25-27,53)]

明代 樓英(1332~1401년)의 저서로서 後人들이 1565년에 총 40권으로 간행한 종합의서이다. 本書는 총 10部로 나누어져 있고, 每部는 病證 治法, 方藥으로 각각 구별되어 있다. 또한 治法은 모두 正門으로 爲主하고, 支門으로 爲輔하였으며, 모든 門은 上下로 나뉘어져 上은 『內經』의 原法이고, 下는 後賢의 讀法과 諸家의 異同得失로 되어 있다. 本書의 가장 큰 특징은 綱目이 정연하고 질서가 정연하여 각종 질병을 모두 臟腑에 따라서 五部로 나누는 방법을 썼다.

두통에 대한 내용과 처방은 十五卷 肝膽部 頭風痛과 三十卷 太陽病 頭痛에 기재되어 있는데, 十五卷 肝膽部 頭風痛, 産後頭痛, 偏頭風, 雷頭風, 大頭痛, 眉痛, 頭重에 총 103개의 두통 처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方名이 기재된 것은 57개이고 나머지 처방은 기원만 기재되어 있거나 方名이 없다. 方名이 기재된 처방은 調中益氣湯, 淸空膏, 半夏白朮天麻湯, 羌活附子湯, 麻黃附子細辛湯, 吳茱萸湯, 小靑空膏, 淸上瀉火湯, 補氣湯, 安神湯, 川芎散(羅天益), 石膏散, 石膏散2, 荊芥散, 玉眞丸, 神妙丸, 川芎神功散, 救苦神白散, 黑龍丸, 麻黃吳茱萸湯, 川芎當歸湯, 一奇散, 順氣和中湯, 靑黛散, 透頂散, 茶調散, 雙解散, 大川芎丸, 神聖散, 頭風方, 芎辛丸, 徹淸膏, 乳香盞落散, 局方玉壺丸, 金花丸, 茯苓半夏湯, 白芷散, 川芎散, 如聖散, 瓜蒂神妙散, 火筒散, 頭痛摩散方, 治頭風餠子, 加減四物湯, 芎附散, 川芎散(羅天益2), 細辛散, 白附散, 神芎丸, 愈風餠子, 凉膈散, 升麻湯, 承氣湯加藍根, 普濟消毒飮子, 黑白散, 選奇湯, 紅豆散, 紅豆散2이다. 三十卷 太陽病 頭痛에는 承氣湯, 桂枝湯, 小柴胡湯, 四逆湯,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 十棗湯, 吳茱萸湯, 蓮鬚葱白湯, 葛根葱白湯, 獨活湯, 石膏川芎湯, 麻黃湯, 白虎湯, 理中湯, 桂枝麻黃各半湯 등의 方名이 있는 15개 처방과 方名이 없는 처방 3개, 총 18개 처방이 있다.

27. 瘡瘍全書[27,54)]

『瘡瘍經驗全書』 또는 『竇氏外科全書』라고

도 한다. 총 13권이며, 金元代의 竇漢卿(1196~1280년)이 편찬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1569년에 竇夢麟이 明代 이전의 책들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外科瘡瘍 외에 五官科・皮膚性病科・小兒科・診斷學・解剖學 등도 언급하였으며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다른 책에서 발췌하였으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卷之十一 世傳秘方 頭疼에 川芎, 石膏 各一錢을 자기 전에 복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28. 醫學入門[25-27,55]

明代의 李梴이 1575년에 19권으로 간행한 의학입문서로 劉純의『醫經小學』,『玉機微義』, 方廣의『丹溪心法附餘』 등을 底本으로 하여 만든 것이다. 本書는 기초이론을 설명한 內集 九卷과 질병치료를 설명한 外集 十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朱丹溪의 의학이론에 바탕을 두고 諸家의 이론을 두루 섭렵하였으며, 편제와 목차는 方廣의『丹溪心法附餘』를 본떠 구성하였다.

雜病分類(上) 風類 頭痛에 方名이 있는 처방이 56개로 芎芷香蘇散, 消風散, 川芎石羔散, 三五七散, 芎辛湯, 羌活黑附湯加味, 蓮鬚葱白湯, 葛根葱白湯, 香茹散加味, 大半夏湯, 芎朮湯, 古防風湯加味, 二陳湯加味, 白虎湯, 川芎茶調散, 羌吳湯, 補中益氣湯, 四君子湯, 四柱散加味, 古芎歸湯, 四物湯加味, 調中益氣湯, 安神湯, 玉眞丸, 古芎烏散, 葫蘆巴散, 如聖餠子, 古藁蒼湯, 半夏白朮天麻湯, 導痰湯加味, 三生丸, 淸空膏, 淸上瀉火湯, 神芎丸, 瓜蒂散, 大黃備急丸, 二氣丹, 黑錫丹, 點頭散, 蓼蘇飮, 徹淸膏, 芩蓮煎湯, 單白芷丸, 祛風通氣散, 羌活勝濕湯, 消風百解散, 防風通聖散, 大承氣湯, 加味烏荊丸, 靑州白丸子, 芎辛湯合導痰湯, 芎辛湯, 古防風湯加味, 金棗丹, 生熟地黃丸, 謝傳點眼丹 등이 있고, 方名이 없는 처방 1개와 외용처방 1개 등 총 58개 처방이 있으며, 그 외에도 傷寒用藥賦에 麻黃杏仁飮, 柴胡半夏湯, 十神湯, 人蔘敗毒散, 柴胡桂枝湯, 金沸草散 등 6개 처방과 傷寒 汗吐下滲和解溫補總方에 柴胡升麻湯이 主治에 두통이 언급되어 있다.

29. 醫學準繩六要[24,26,27]

明代의 張三錫이 1585년에 편찬한 책으로 총 19권이다. 저자는 의학의 요지가 診法・經脈・病機・藥性・治法・運氣 여섯 가지라고 여겨『內經』,『難經』,『傷寒論』,『金匱要略』 및 역대 의서의 관련내용을 모아 편찬하였다.

『醫部全錄』 頭門二에 麻黃湯, 羌活冲和湯, 桂枝湯, 芎蘇飮, 川芎茶調散, 消導二陳湯, 半夏白朮天麻湯, 瓜蒂散, 四君子湯, 調中益氣湯, 吳茱萸湯, 麻黃附子細辛湯 등 12개 처방이 기재되어 있다.

30. 古今醫鑑[26,27,56]

明代의 龔信이 편집하기 시작하여 그의 아들인 龔延賢이 계속 편집하였으며, 王肯堂(1549~1613년)이 修訂・增補하였는데, 저술연대는 미상이다. 총 16권으로 原作은 8권이다.

卷九 頭痛에 실린 두통 처방은 18개이며, 吳茱萸湯, 調中益氣湯, 白朮半夏天麻湯, 羌活附子湯, 玉壺丸, 香蘇散, 五苓散, 金沸草散, 十神湯, 川芎茶調散, 當歸補血湯, 補中益氣湯, 芎芷散, 都梁丸, 補血祛風湯, 加減芎辛湯, 選奇方, 回首散 등이다.

31. 證治準繩[25-27,57]

明代의 王肯堂(1549~1613년)이 1602년에 완성한 저서로『六科證治準繩』이라고도 한다. 本書는 총 44권으로『雜病證治準繩』8卷,『雜病證治類方』8卷,『傷寒證治準繩』8卷,『瘍醫

證治準繩』6卷,『幼科證治準繩』9卷,『女科證治準繩』5卷을 포괄하고 있다. 이 중에서『雜病證治準繩』8卷은 모두 13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每 門의 앞에는 총론이 있고, 뒤에는 證에 따라 나누어 서술하였으며, 每 證의 아래에는 먼저 內經, 傷寒論 및 金元諸家의 說을 인용했고 그런 뒤에 자신의 論을 덧붙였다.

두통에 관한 내용과 처방은『雜病證治準繩』第四冊 諸痛門 頭痛에 있는데, 처방은 方名이 없는 처방이 4개가 있고, 方名이 기재되어 있는 처방은 61개로 麻黃附子細辛湯, 吳茱萸湯, 淸空膏, 白虎湯, 安神散, 川芎散, 淸上瀉火湯, 補氣湯, 石膏散, 荊芥散, 羌活附子湯, 麻黃吳茱萸湯, 透頂散, 大川芎丸, 神聖散, 乳香盞落散, 調中益氣湯, 半夏白朮天麻湯, 玉壺丸, 金花丸, 黑龍丹, 玉眞丸, 正元散, 大三五七散, 來復丹, 黑錫丹, 茸朱丹, 釣藤散, 治中湯, 紅丸子, 葛花解醒湯, 沈香降氣散, 蘇子降氣湯, 養正丹, 旣濟解毒湯, 白芷散, 如金散, 瓜蒂神妙散, 火筒散, 鬱金散, 細辛散, 芎犀丸, 升麻湯(淸震湯), 茶調散, 神芎丸, 烏荊丸, 愈風餠子, 凉膈散, 承氣湯加藍根, 普濟消毒飮子, 瓜蔞根湯, 黑白散, 甘桔湯 加味, 選奇湯, 祛風淸上散, 二陳湯 加味, 羌烏散, 生熟地黃丸, 導痰湯, 小芎辛湯 加味, 靑州白丸子 등이며, 처방 내용은 대부분『雜病證治類方』第四冊 頭痛에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분은『雜病證治類方』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雜病證治類方』第四冊 頭痛에는『雜病證治準繩』諸痛門 頭痛에 기재된 처방 외에도 川芎散1, 石膏散1, 石膏散2, 順氣和中湯, 如聖散, 一滴金丸, 頭風摩散方, 治頭風餠子, 冲和膏, 秘方茶調散, 芎朮湯, 川芎散2, 菊花散, 芎辛導痰湯, 大追風散, 止痛太陽丹, 頭痛不可忍方, 急風散, 點頭散, 胡蘆巴散, 川芎散3, 洁古方, 細辛散, 偏頭疼方, 仙靈脾浸酒方, 白附散, 一粒金, 茶調散, 上淸散, 紅豆散의 30개 처방이 더 수록되어 있으며, 無名處方도 8개가 있다.

32. 外科正宗[25-27,58)]

明代의 陳實功(1555~1636년)이 총 4권으로 편찬한 것으로 1617년에 간행되었다. 모두 157편으로 總論・診斷・治法・病例・方劑의 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흔히 나타나는 외과질환의 증상감별과 치료에 대해 논술하고 있다.

卷之四 頭痛第六十六에 天麻餠子, 三聖散 2개 처방이 기재되어 있다.

33. 景岳全書[25-27,59)]

明代의 張介賓(1563~1640년)이 1624년에 저술한 종합의서로서 총 64권으로 되어 있다. 本書에는 傳忠錄・脈神章・傷寒典・雜證模・婦人規・小兒則・麻疹論・痘疹詮・外科鈐・本草正・新方・古方・外科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방제에 있어서는 溫補위주의 治法으로 창제한 新方이 2卷에 이른다. 이 중 50-60권은 新方八陣과 古方八陣으로 新方 186수와 古方 1516수를 수록하고 있는데, 新方은 張介賓이 스스로 創方한 것이다. 61-64卷은 婦人・小兒・痘疹・外科의 四科에 대한 방제로 모두 922首를 분별수록하고 있다. 이상 모두에 기록된 처방이 2,624首이다.

卷之二十六 必集 雜證模 頭痛門에 두통 관련 처방으로 滋陰八味煎, 加減一陰煎, 玉女煎, 六味地黃丸, 四物湯, 三陰煎, 左歸飮, 理陰煎, 理中湯, 十全大補湯, 補中益氣湯, 五福飮, 五君子煎, 二陳湯, 六安煎, 和胃飮, 平胃散, 淸膈煎, 金水六君煎, 六君子湯, 半夏白朮天麻湯, 麻黃湯, 桂枝湯, 連鬚蔥白湯, 葛根葱白湯, 調胃承氣湯, 小柴胡湯, 吳茱萸湯, 調中益氣湯, 淸空膏, 羌活附子湯, 玉壺丸(局方), 硝

石散, 白虎湯, 平胃散, 和胃飮, 川芎散(聖惠), 川芎散(玉機), 藿香正氣散, 十神湯, 神朮湯(傷寒), 川芎茶調散, 都梁丸, 上淸散, 羌活勝風湯, 愈風餠子, 菊花散, 旋覆花湯, 如聖散, 透頂散, 八般頭風, 點頭散, 芎芷散, 芎辛導痰湯, 天香散, 神芎丸, 茶調散, 石膏散, 雙玉散, 荊芥散, 芎朮湯, 三生丸, 吹鼻六神散, 當歸酒, 黑錫丹 등 65개 처방이 있으며 처방구성 내용은 대부분 新方八陣과 古方八陣에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도 卷之五十一 德集 新方八陣에 正柴胡飮, 玉泉散의 2개 처방이, 卷之五十三 圖集부터 卷之六十一 長集 古方八陣까지 神朮散, 神朮散(局方), 五物香薷飮, 人蔘養胃湯, 大金花丸, 麻黃附子細辛湯, 大靑龍湯, 柴胡石膏湯, 柴葛解肌湯, 蔘蘇飮(局方), 九味羌活湯, 消風百解散, 華蓋散, 冲和散, 麻黃左經湯, 再造散, 六神通解散, 荊芥散, 秘方茶調散, 犀角散, 左金丸, 還睛丸, 二黃散, 猪腰湯, 趁痛散(良方), 玉露散, 人蔘當歸湯, 女金丹 등의 28개 처방이, 卷之六十二 長集 小兒則古方에 惺惺散, 黃芩湯(錢氏), 茯神湯, 葛根麥門冬散, 養血當歸地黃湯 등의 5개 처방이 主治에 두통이 언급되어 있어 총 100개 처방이 두통과 관련된 처방이다.

34. 醫宗必讀[3,25-27)]

明代의 李中梓(1588~1655년)가 1637년에 총 10권으로 편찬한 의서로서, 1권은 醫理를 통론하고 2권은 脈法, 3・4권은 本草, 5-10권에서는 內科雜病을 위주로 한 33種 病證의 病因과 증상 및 치료를 논술하고, 아울러 醫案을 덧붙였다.

第五卷 傷寒 頭痛, 第八卷 頭痛에 淸空膏 및 그 가미방 3개, 無名處方 3개를 포함하여 총 42개의 처방이 있다. 方名이 있는 처방은 麻黃湯, 羌活冲和湯, 葛根葱白湯, 川芎石膏湯, 小柴胡湯, 瓜蒂散, 吳茱萸湯, 小建中湯, 調胃承氣湯, 白虎湯, 玉眞丸, 來復丹, 香砂枳朮丸, 葛花解醒湯, 沈香降氣散, 蘇子降氣湯, 補中益氣湯, 四物湯, 旣濟解毒湯, 芎犀丸, 淸震湯, 普濟消毒飮子, 甘桔湯加味, 選奇湯, 生熟地黃丸, 導痰湯, 七味人參湯, 安神丸, 透頂散, 大川芎丸, 玉壺丸, 灸來復丹, 神芎散, 茶調散, 菊花散, 黑錫丹 이다.

35. 醫門法律[27,60)]

총 6권으로 淸代의 喩昌(1585~1664년)이 1658년에 편찬하였다. 本書는 臨床病證과 결합하여 辨證論治의 원칙을 전면적이면서도 상세히 서술하였는데, 1권은 四診의 法律과 『內經』, 『傷寒論』의 證治法則을 명확히 밝혔고, 2-6권은 風寒暑濕燥火의 雜證을 門으로 나누었으며 每 門은 論・法・律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法은 주로 治를 말하였다.

頭門은 따로 있지 않으며 두통 관련 처방은 각 門에 흩어져 있는데, 主治에 두통이 포함된 처방으로는 愈風丹, 石膏散, 桂苓甘露飮, 羌活勝濕湯, 五苓散加味, 潑火散, 大黃龍丸, 半夏散, 大川芎丸, 旋覆花散, 抵當湯, 人蔘散 등 총 12개 처방이 있다.

36. 石室秘錄[27,61)]

淸代의 陳士擇이 1687년에 총 6권으로 간행한 종합의서이다. 卷1-5에서는 病證・脈象을 나누지 않고 正醫・反醫・內治・外治 등 128法을 通述하였고, 또한 치료방제를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卷6에서는 傷寒・雜病 등의 증상과 치료로 되어 있다.

頭門이나 頭痛門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治法에 따라 處方이 분류되어 있으며, 主治에 두통이 있으면서 方名이 분명치 않은 처방이 完治法에 4개, 大治法에 1개, 偏

治法에 1개, 上治法에 2개, 解治法에 1개, 常治法 1개, 初治法에 1개, 分治法에 1개, 吸治法에 1개, 産後治法에 1개, 形治法에 1개 등 15개 처방과, 淺治法에 小柴胡湯, 小柴胡湯論에 補中益氣湯 등 총 17개의 처방이 있다.

Ⅳ. 결 론

두통처방의 시대별 변화과정과 두통증상에 따른 처방 분류, 두통 사용약물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한 예비연구로서 『醫部全錄』 頭門의 목차에 언급된 문헌의 原書를 찾아 두통처방을 수집·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醫部全錄』 頭門의 목차에 두통이 언급된 문헌은 총 37종 이었다.

2. 두통 처방은 『傷寒論』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후대의 醫書에서도 같은 처방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3. 方名이 없는 두통 처방이 唐代의 『千金方』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淸代의 『石室秘錄』에서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4. 1107년에 간행된 『活人書』에서부터 두통에 대한 내용과 처방이 門이나 篇으로 독립되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5. 1247년에 간행된 李東垣의 『內外傷辨惑論』 卷上 辨頭痛에서 두통을 內證과 外證으로 감별하는 법을 설명하였으나, 두통 처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두통 처방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각 醫書에서 사용된 두통 처방의 시대별 변화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처방의 출전 규명과 문헌적 근거를 확보하고, 증상에 따른 변증과 처방의 분류 연구를 통해 임상진료지침의 근거를 마련하며, 처방에 사용된 약물의 종류·용량·사용빈도·효능·기미·귀경·약리학적 효과 등을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두통 약물을 개발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9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참고문헌

1. 전국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교과서편찬위원회 편. 한의신경정신과학. 경기도 파주:집문당. 2007:266-70.
2. 대한두통학회. 두통학. 서울:군자출판사. 2009:39.
3. 李中梓. 醫宗必讀. 서울:목과토. 2000:424-5, 470, 474, 477, 479-80, 486, 501, 512, 534, 538, 550, 594, 717, 720-36.
4. 홍원식.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전통문화연구회. 1992:72.
5. 김경식, 이임근. 鍼灸配穴事典. 서울:일중사. 1991:133.
6. 최도영, 임사비나, 차남현, 김건식, 이재동, 김수영, 이윤호, 이두익. 만성두통환자에게 적용한 비약물적 치료가 통증행동에 미치

는 영향.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5;22(1):55-66.
7. 김제영, 이시섭, 유정석, 송범용, 김락형, 육태환. 만성두통에 대한 뇌청혈해독탕의 임상적 효과.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7;18(1):133-42.
8. 곽병민, 김민정, 김연미, 이재민, 박양춘, 조정효, 정인철, 강위창, 이상봉, 최선미, 홍권의. 만성 긴장성 두통 환자의 침치료 지속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8;25(2):165-77.
9. 정인태, 이상훈, 최도영. 긴장형 두통의 임상양상 및 생체전기 자율반응과의 상관성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4;21(2):183-203.
10. 최성용, 이승현, 김성남, 김홍훈, 김대중, 국윤재, 조남근, 김성철, 황우준. 원발성 두통과 홍채 체질과의 상관성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5;22(6):155-63.
11. 홍정애, 김성수, 신현대. 구호흡 환자의 두통과 두경부 자세에 관한 연구.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6;16(4):15-24.
12. 김경옥, 심상민, 구병수. 긴장성 두통 및 불면을 주소로 입원한 환자의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진단별 특성.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3;14(1):117-31.
13. 박지윤, 정인철, 이상룡. 우울, 불안 척도를 이용한 긴장성 두통 환자의 임상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3;14(2):145-54.
14. 김지윤, 홍현우, 김재연, 이성도, 박동일, 감철우. 두통을 주소로 입원한 환자 25명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4;25(4):34-44.
15. 정인태, 이상훈, 김수영, 차남현, 김건식, 이두익, 이재동, 임사비나, 이윤호, 최도영. 만성두통환자에 대한 동서협진의 임상적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5;22(3):93-104.
16. 김보영, 이지인, 권순주, 정대규. 협계보(俠谿補) 상양사(商陽瀉) 자침이 즉효성(卽效性)을 보인 두통 15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4;15(1):231-7.
17. 이지인, 김보형, 권순주, 정대규. 만성두통을 주소로 하는 화병 환자 1례 증례보고.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4;15(2):221-8.
18. 서부일. 半夏白朮天麻湯과 그 變方으로 痰厥頭痛 재발 환자를 치료한 治驗例. 대한본초학회지. 2007;22(2):79-82.
19. 박영희. 긴장성 두통의 동서의학적 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4;15(1):1-7.
20. 이용태, 이동민, 박성하. 頭痛의 원인에 따른 形象醫學的 고찰(東醫寶鑑 頭門을 중심으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21(4):835-41.
21. 박성호, 이병렬. 두통의 원인과 鍼灸治療穴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998;15(2):455-78.
22. 김성욱, 구병수. 두통의 병인 분류와 침구치료에 대한 문헌적 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0;11(2):189-200.
23. 이준무, 지준환. 동의보감 두통분류에 따른 十種頭痛의 침구치료에 대한 문헌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4;21(4):167-77.
24. 陳夢雷, 蔣延錫. 欽定古今 圖書集成 醫部全籙 6. 서울:대성문화사. 1986:1-144.
25.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맹웅재, 박경남, 박현국, 방정균, 신영일, 안상우, 엄석기, 은석민, 이병욱, 차웅석. 강좌 중국의학사. 서울:대성의학사. 2006:92, 109, 172, 174, 236, 266-7, 269, 270, 279, 311-2.
26. 홍원식, 윤창열.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일중사. 2001:81-3, 145-6, 168-70, 174-6, 200-2, 210-1, 215-6, 256, 262, 275, 322-7, 329, 369-82, 384, 471, 480-3, 533.

27. 전통의학연구소 편찬. 동양의학대사전. 서울:성보사. 2000:139, 172, 354, 357, 361, 387, 432, 441, 487, 517, 529, 537, 547, 566, 593-5, 616, 706, 780, 847, 862, 881, 1037, 1037-40, 1071, 1079, 1097, 1102, 1122, 1132-3, 1196, 1455, 1486, 1620, 1622, 1625, 1636, 1696, 1698, 1714, 1722, 1728, 1789, 1798, 1802-3, 1807, 1820-1, 1829, 1832, 1855, 1930, 1933, 1940, 1948, 2033, 2089, 2103, 2128, 2140, 2178-9, 2207, 2304, 2466, 2598, 2697, 2735.
28. 扁鵲. 難經本意. 대전:주민출판사. 2003:263-4.
29. 華陀. 中藏經:中華醫書集成 第二十二冊 綜合類 1.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9:7, 19, 21.
30. 張仲景 編著. 傷寒論. 新編 仲景全書. 서울:대성문화사. 1993:50, 53, 61, 72, 78, 84, 113-4, 130, 152, 187.
31. 張仲景 編著. 金匱要略. 新編 仲景全書. 서울:대성문화사. 1993:1, 3, 7, 27, 51, 53.
32. 王叔和. 脈經:中華醫書集成 第四冊 診斷類.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9:9-15, 68-70, 77.
33. 李時珍. 國譯 瀕湖脈學 四言擧要 奇經八脈攷. 서울:대성문화사. 1992:101.
3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9:416-22.
35. 朱肱. 活人書. 서울:아티전. 1997:131, 135, 168-9, 253, 262, 268-9, 284, 306, 312, 320, 325, 331, 342, 345, 348, 354-60, 373, 376, 388-9, 391, 400, 407.
36. 許叔微. 普濟本事方:中醫方劑名著集成. 北京:花夏出版社. 1998:95-6.
37. 劉河間. 素問玄機原病式, 黃帝素問宣明論方,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傷寒直格論方, 傷寒標本心法類萃: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법인문화사. 2007:21-52, 72-3, 76, 82-3, 90, 93, 95-6, 101, 105-6, 199, 201-2, 206, 316-17, 340.
38. 馬宗素. 傷寒醫鑑: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법인문화사. 2007:361-74.
39. 張子和. 儒門事親: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법인문화사. 2007:508, 530, 538, 573, 575, 577, 580, 584-5.
40. 李東垣外 五名. 東垣十種醫書. 서울:대성문화사. 1991:35, 85, 92, 120, 136, 186-91, 274-5, 310-4.
41. 朱丹溪. 丹溪心法: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下). 서울:법인문화사. 2007:345-9.
42. 羅天益. 衛生寶鑑:中華醫書集成 第二十二冊 綜合類 1.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9:52-5.
43. 嚴用和. 濟生方:中醫方劑名著集成. 北京:花夏出版社. 1998:514.
44. 楊士瀛. 仁齊直指:欽定 四庫全書 子部 五醫家類 12. 서울:대성문화사. 1995:67, 78, 370-7, 611-2.
45. 危亦林. 世醫得效方:中華醫書集成 第九冊 方書類 2.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9:14, 161, 163, 193-6, 265.
46. 戴思恭. 證治要訣及類方:中華醫書集成 第二十三冊 綜合類 2.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9:27-8, 60, 65, 68-9, 70, 77-9, 80, 82-4, 89, 92, 99, 100-1.
47. 董宿, 方賢. 奇效良方.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5:3-4, 8, 66, 205-13.
48. 陶華. 傷寒六書.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0:37-42, 44-5, 71-2, 121-4, 136-42, 200-1.
49. 王綸. 明醫雜著:中華醫書集成 第二十三冊 綜合類 2.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9:243-4, 281-3.
50. 虞摶. 醫學正傳:中華醫書集成 第二十五冊 綜合類 4.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9:124-9.
51. 薛己. 薛氏醫案.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152, 750-1, 886, 905, 914-5.

52. 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8:35-52.
53. 樓英. 醫學綱目.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62, 78, 276-86, 586, 678-80, 682, 684, 686, 689-90, 697, 705-6, 714, 718, 814.
54. 竇漢卿. 瘡瘍經驗全書:中華醫書集成 第十三冊 外科類 1.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9:174.
55. 李梴. 新校 編註醫學入門(下). 서울:대성문화사. 1994:68, 70, 73, 79-82, 86, 100, 116, 118, 123, 138, 141, 174-7, 433, 435-9, 443, 456, 468, 505, 510, 529, 545, 556, 585, 650-2, 655, 658, 660-2, 668, 705.
56. 龔信. 古今醫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70, 88, 101, 155, 213-4, 254-58.
57. 王肯堂. 證治準繩. 王肯堂醫學全書:明清名醫全書大成.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124-9, 382, 385, 389, 394-5, 400, 416, 421-2, 451, 497-504, 557-8, 679.
58. 陳實功. 外科正宗.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234-5.
59. 張景岳. 景岳全書. 서울:한미의학. 2006:1189-1201, 2567, 2572, 2579-81, 2591, 2596, 2598-9, 2600, 2602, 2604, 2648, 2650, 2652, 2668, 2673, 2691, 2694-5, 2699, 2714, 2731, 2734, 2745, 2785, 2799, 2804, 2821-31, 2835-9, 2840, 2843, 2846, 2851, 2855, 2865, 2878, 2883, 2906, 2916, 2925, 2939, 2963, 2966, 2973, 2985, 3037, 3053-6, 3062, 3066, 3086, 3092-3, 3150, 3236.
60. 喩嘉言. 醫門法律. 喩嘉言醫學全書:明清名醫全書大成. 북경:중국중의약출판사. 1999:247, 281, 285, 287-9, 296, 310-1, 341, 358.
61. 陳士擇. 石室秘錄. 서울:서원당. 2000:50-1, 53-4, 65, 78, 98-9, 177, 214, 235-6, 242, 251, 259-60, 284, 353.